전법 일기

한 불자 여고생의 꿈 기간제교법사로 펼쳐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한 평범한 여고생이 종립학교 법당에서 처음 목탁을 잡았다. 소심한 목탁 소리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오분향례를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목소리의 떨림은 계속되었다. 그렇게 예불을 하고 그날 저녁 그 여고생은 집에 가서 '다음에는 더 잘할 거야!'라는 생각으로 이불을 뒤집어쓰고 목탁을 두드렸다. 그건 바로 나였다.

다음날 예불에서 목탁을 잡게 된 나는 어제의 연습과 다짐처럼 자신 있는 목탁 소리와 커다란 목소리로 예불을 이끌었고, 아침마다 예불 시간을 기다리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후 3년간 매일 아침 목탁 집전을 하며 예불을 올리고, 자연스레 법사님과 친해져 많은 시간을 법당에서 보내게 되었다. 학교 쉬는 시간뿐만 아니라 방과 후에도 법사님의 전법 프로그램은 진행되었고, 방학이면 전국의 사찰로 순례를 다니며 학창시절 나의 불연(佛緣)은 점점 깊어졌다.

어릴 적 할머니와 함께 법회에 참여했던 꼬맹이가 느꼈던 불교와, 청소년이 되어 종립학교 불교학생회 활동을 하며 느낀 불교는 나의 삶에 큰 부분으로 자리했고 이는 나의 인생관과 방향성을 제시하게 되었다. 이렇게 살아있는 불교를 접하게 된 나는 '청소년에게 꿈을 전하고, 부처님 법을 전하는 교법사가 되겠어!'라는 서원을 매일 가슴에 품고 살아갔다.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드디어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지방 종립학교에서 근무하시던 교법사님이 병가로 휴직하시고 기간제교법사를 구하는 공고를 보게 된 것이다. 연고지도 없는 지방에다가 기간제교법사 자리였지만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디든 달려갈 준비가 돼있던 터라 공고가 나자마자 기차를 타고 면접을 보러 갔다. 처음 교장선생님을 뵈었을 때는 나이 어린 여자 법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으로 가득 차 보였다. 하지만 그에 겁먹을 내가 아니었다. 학기가 시작하면서부터 학생들과 친해지기 작전에 들어갔다. 제일 먼저 학생들에게 불교는 신나고 재밌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또한 혈기왕성한 남자 중학생들과 어떻게 신나게 놀아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쇼 미 더 붓다(Show me the Buddha)'라는 불교 랩 경연 대회를 개최했다. 생각보다 학생들의 반응은 뜨거웠고 상품도 없었던 대회에 전교생이 들썩이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며 작사 작곡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회당일 법당에서 예선전을 거쳐 Top3에 들었던 학생들의 공연은 학교 방송실이 전교에 생중계했다. 그때 학생들의 설렘 가득한 표정은 아직도 잊히질 않는다. 오랜 세월을 살지는 않았지만 저마다의 깊은 인생 이야기와 고민을 부처님과 불교 교리에 접목하며 써내려간 가사가 내 마음을 한껏 몽글몽글하게 만들었다. 학생들과 신나게 놀았던 이 기억은 첫 교직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다. 16년 전 고등학생이 부처님 앞에서 서원했던 전법의 꿈의 첫 발을 내딛는 시작이었다.



김가연
광동고 교법사



김형중의 **깨달음의 노래** ⑤ 무산 대종사의 오도송 '파도'

"천경 만론 모두가 바람에 이는 파도"

파도

밤늦도록 책을 보다가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먼 바다 울음소리를 홀로 듣노라면
천경(千經) 그 만론(萬論)이 모두 바람에 이는 파도란다

설악 무산 대종사(1932~2018)는 설악산 백담사에서 "부처의 님은 중생"이라는 한용운의 불교정신을 가장 잘 계승 발전시킨 만해의 후예이다. 인제군 용대리 마을 노인들을 부처님 모시듯이 하여 부처를 중생 속에서 찾았다.

'파도'는 무산 스님이 동해 낙산사에서 참선 수행 중에 깨달음을 얻고 읊은 오도송이다. 원래 선시나 오도송은 전통적으로 한시(게송) 형식을 취하였기 때문에 쓰는 작자나 읽는 독자가 전문적인 시와 선적인 식견을 갖추지 않으면 접근하기 쉽지 않다. 무산 스님은 선가의 시를 현대시조 형식을 빌어서 표현하는 선시조를 창작한 한국문학사에서 최초로 한글로 선의 세계를 현대시조로 읊은 선시조의 창작자이다. 선시조집인 〈심우도〉 〈만악가타집〉이 있다.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말로 읊은 한글 선시인 '아득한 성자' '아지랑이' '숲' 등이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었다.

'파도'는 초장, 중장, 종장의 시조 형식(3장)과 규칙을 두루 갖추어 문학성도 뛰어난 현대시조이며, 선(禪)시조이다. 종장의 첫 음보를 보통사람이라면 "천경과"라고 할 텐데, "천경(千經) 그"라 하여 반드시 3음보여야 하는 규칙을 멋지게 구사할 뿐만 아니라 한시의 운율을 원용하여 "가" "가" "다"로 압운하여 시조의 음악적인 리듬까지 살리는 묘용을 부리고 있다.

선과 시는 공통점이 자연을 보고 느끼는 세계와 마음으로 깨닫는 경계를 고도의 압축된 문자와 직관으로 접

생업 현장인 바다 파도소리 듣고 깨달아
바람 인연 만나야 하는 파도는 '색즉시공'
동해바다 파도소리가 곧 깨달음임을 전해

근하고 표현한다는 점에서 일치하므로 시선일여(詩禪一如)라고 한다.

특히 시조가 선비의 충절과 풍류 등 관념적인 주제를 노래한 정형시인 것이 선사가 선 수행과 깨달음 등 관념적인 내용을 읊는 선적인 시를 표현하는데 적합하다. 무산 스님은 선시를 현대시조 형식으로 창작하는 전범을 보인 시승(詩僧)이다.

초장과 중장에서 "밤늦도록 책을 보다가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먼 바다 울음소리를 홀로 듣노라면"은 투철한 구도와 수행의 과정을 읊고 있다. 나름대로 경전도 읽고 관법 수행도 해보다가 바다의 울음소리 즉, 파도소리를 듣고 종장에서 깨달음을 예약한다.

'파도'의 주제는 종장의 "천경 그 만론이 모두 바람에 이는 파도란다"이다. 부처가 설한 팔만대장경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 낸 모든 관념이 바람이 만들어 낸 파도처럼 실체가 없는 주장과 주의(主義)란 뜻이다. 그러니 절대적으로 매달려서 집착할 것이 못 된다(應無所住)는 〈금강경〉의 공사상을 나타낸 선사의 깨달음의 노래이다.

무산 스님은 하늘의 별을 보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어부가 생업으로 삶의 현장인 바다의 파도소리, 해조음(海潮音)을 듣고 깨달았다. 파도는 바닷물이 바람이란 인연을 만나야 나타나는 실체가 없는 자연계의 현상이다. 색즉시공(色卽是空)이다. 해조음은 부처님의 설법을 상징하는 말이다. 스님은 법상에서 자신의 설법보다 동해바다의 파도소리를 듣는 것이 더 낫다고 설하였다.

며칠 전 아내와 낙산사를 다녀왔다. 해수관음상 곁에서 동해바다를 바라보시는 무산 스님 동상에 합장하고 스님의 무언설법을 들었다. 끝없이 밀려왔다가 밀려가는 파도소리 "철얼석 철얼석 쏴아…." 〈문학평론가〉

기자칼럼

지구가 살아야 나도 산다

2년 전 일회용품 대신 텀블러만 사용하겠다고 다짐했던 적이 있다. 기후위기 극복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겠다는 마음이었다. 사실 일상에서 가장 실천하기 쉽고 간단한 방법이기도 하다.

처음엔 잘 지켰다. 출근 후 텀블러를 씻는 게 일과가 됐고, 음료를 사러 갈 땐 꼭 텀블러를 가지고 다녔다. 그에 따른 할인 혜택은 덤이었다. 마치 지구를 구하는 '히어로'라도 된 듯 뿌듯했다.

그리 오래가진 못했다. 귀찮음이 주된 원인이었던 것 같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마음이 스멀스멀 피어올랐고, 온갖 핑계를 대면서 텀블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만들어냈다. 썩지 않는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양심에 걸리다 못해 죄책감이 들곤 했지만, 그마저도 이내 무뎌져 버렸다.

그러는 사이 기후위기는 우리 실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아침저녁은 추운 반면 한낮은 여름인 탓에 옷차림이 어정쩡해졌고, 기상이변으로 농산물 수확량이 줄어 밥상 물가는 요동을 치고 있다. 해수 온도 변화로 김 생산량이 줄어 관련 제품 가격은 10~20% 올랐고, 양배추는 한 통 8000원을 웃돈다. 대파, 사과, 참외, 배추, 당근, 양파 등 밥상에 자주 오르내리는 품목 가격도 크게 상승했다. 그야말로 '금값'이다.

기후위기가 코앞까지 다가온 지금,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게 해준 건 불교기후행동의 녹색불자 실천 캠페인이다. 불교기후행동은 제54회 지구의 날을 맞아 지구등을 만들며 기후위기 심각성을 알렸고, 자연과의 공존하는 삶의 필요성을 재차 일깨웠다. 포기하지 않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다행스러운 순간이었다.

기후위기, 더 이상 남의 나라, 남의 얘기가 아닌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됐다. 지금이라도 나서지 않으면 기후변화는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오늘 다시 한 번 텀블러 생활화를 다짐해 본다.



김내영 편집국 기자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뉴길 교통사고에 산산조각난 가장의 꿈

네팔 이주민노동자 카미씨, 가족 위해 공장일에 농장까지
눈길 교통사고로 고관절탈구 · 다리골절…병원비 · 빚 2500만원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